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97)

깊은 산속 감춰진 작은 요새 연상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7 (3)서귀포지역도 예외 아니-(30)법정악·우보악

입력 : 2008. 03.13. 00:00:00



▲서귀포시 법정악에서 발견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 / 사진=이승철기자

소규모 갱도진지 불구 관측구 등 갖춰 일본군 포병부대 진지 구축... 상태 양호

울울창창 활엽수림과 오름을 끼고도는 계곡이 발길을 붙잡는 곳이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법정악(法井岳·하원동 산1번지·표고 760m)은 심산유곡으로 유명하다. 하원 주민들 사이에서는 큰돌오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일대는 현재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돼 있다. 취재팀은 이곳에서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만든 갱도진지를 발견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이다.

이곳의 갱도진지는 마치 깊은 산속에 감춰진 작은 요새를 연상시킨다. 오름 남쪽사면 7부 능선 지점에 성채처럼 보이는 곳에 갱도진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송이(scoria)층을 뚫고 만든 이 갱도는 길이가 20m 정도로 소규모다. 하지만 내부는 공간 4곳이 만들어져 있는 등 짜임새가 있다. 이 가운데 동쪽과 남쪽 공간은 방처럼 만들어 내무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곳에는 각각 관측구까지 나 있어 눈길을 끈다. 내부에서 밖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통호도 20여m 정도 길게 나 있다. 이 갱도는 전체적으로는 10여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와 공간을 하고 있다.

법정약에서는 거린사슴과 녹하지악이 지척이다. 특히 녹하지악은 대규모 갱도진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관심을 끄는 곳이다. 거린사슴 역시 갱도진지가 구축돼 있다. 또한 일본군 포병부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입지여건을 보면 법정약에는 일본군 포병부대가 진지를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포병부대는 다래오름 일대에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진 제12포병사령부 예하부대일 것으로 보인다.

포병부대와 관련 서귀포 일대에서 시선이 모아지는 오름은 우보악이다.



▲우보악의 일본군 갱도진지. 내부 벽면에 갱목 홈이 뚜렷이 남아 있다.

서귀포시 색달동 대유수렵장 맞은 편에 나지막히 솟아있는 우보악(牛步岳 ·표고 301m)에서도 일본군 갱도진지가 확인된다. 우보악에서는 진입이 가능한 소형 갱도진지 1곳과 입구가 막힌 갱도 등이 확인된다.

소형 갱도진지는 동쪽 사면 8부 능선 지점에 장방형(口자형) 구조(530cm×240cm)로 만들어졌다. 갱도 내부에는 갱목을 세웠던 자국과 등잔 홈이 뚜렷이 남아있다. 또한 천장부 가장자리에도 길게 홈이 패여 있다.

또 다른 갱도진지는 입구 부분이 막혀있다. 하지만 이 갱도에 대해 지역주민인 이승종씨(서귀포시 색달동)는 "내부에 50평 정도 되는 널따란 공간이 있는 갱도였다"고 기억했다.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갱도가 우보악의 중심 갱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갱도는 현재 너비 1m, 높이는 70cm 안팎이다.

이외에도 인근 지역주민들은 갱도가 2~3곳이 더 있었다고 증언한다.

이곳에는 어떤 부대가 주둔했을까.

일본군 주둔과 관련 지역주민들은 "당시 우보악 아래 색달동 속칭 '생수케' '폭낭물' 지경에서 오름(우보악)쪽으로 포를 쏘다"고 증언했다. '폭낭물' 지경에서 우보악까지는 직선거리로 2km쯤 된다. 또한 오름 정상부 산화경방초소 주변에는 탄착지점으로 추정되는 지름 1.5m 정도의 구덩이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포병부대와 관련 있다면 우보악 주둔부대 역시 제12포병사령부 예하의 박격포부대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확인되는 장방형의 갱도 또한 주 갱도에서 파견된 부대가 머무는 공간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탄약고일 가능성도 있다.

우보악은 남쪽으로 분화구가 깊고 길게 패여 있어 산세가 높다. 남쪽으로는 제주 서남부 해안이 보이고 뒤로는 군산 산방산 가파도 마라도 등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제58군배비개견도'에 복곽진지로 표시된 영아리 돌오름과 녹하지악 및 모라이오름, 거린사슴 등을 조망할 수 있다. 우보악은 주변 지형이나 복곽진지로 구축된 영아리오름과 돌오름의 거의 중간쯤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로 볼 때 포병부대나 포병부대의 지휘소 또는 관측소 등이 위치하면서 해안의 결전부대를 지원하기에 적당한 입지여건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일본군 주둔과 갱도진지 실태 등 성격규명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조사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일제 조직적 강제동원 사진자료 발굴..문두길씨 취재팀에 제공



▲일제가 조직적으로 강제노역에 동원했음을 보여주는 청년단 사진.

일제강점기 일제가 청년단을 구성 조직적으로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진자료가 발굴됐다.

당시 강제동원 피해사례를 정부 위원회에 접수한 문두길씨(75·제주시 삼양2동)는 본보 특별취재팀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에 관련 사진자료를 제공했다.

문씨가 제공한 사진은 숙부인 문성신씨(1922년생)가 1942년 산지항(현 제주항) 건설공사에 노무동원됐다 기념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은 '명륜당'(明倫堂) 현판이 걸린 기와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지금의 제주향교에서 촬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삼양청년대항만건설근로봉사기념'이라 적힌 것으로 볼 때 산지포구 건설에 청년단을 조직해서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촬영일시는 '소화(昭和)17년5월7일 조일(朝日)'로 돼 있어 1942년 5월7일 아침에 촬영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위원회 이병례 전문위원은 "당시 어린나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일제에 의해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동원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또 "일제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군사시설 구축 등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어린나이 사람들까지 동원한다"며 "이 사진은 청년단이 전시노동력 동원의 단위로 이용됐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이윤형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